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함줄함줄 2020 캠페인 “생각하여 보라”

전염병을 생각하다

다섯 번째를 맞은 “주님의 서재”에서는 ‘전염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책 두 권과 어린이 책 한권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직업, 소비, 여행, 배움, 시간, 사랑, 믿음, 말씀, 현금, 가정, 기도, 거룩 등을 주제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이 주제들에 대하여 공동체 여러분이 추천하시는 책, 또는 새로운 주제, 좋은 책 한 구절 등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면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 계획에 넣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독후감도 보내주세요! “책 읽어주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연재글입니다. 이번 호에는 지식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함줄함줄

주님의 서재 ⑥ 전염병을 생각하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됩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적어도 내년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방역을 잘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상황이 함께 나아지지 않으면 감염 확산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지요. 부지불식간에 도래한 비대면의 시대, 마스크의 시대에 과연 신앙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최현식, 생명의말씀사, 2020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에도 줄지어 일어나는 교회 및 교회 소모임발 감염 사례로 교회마다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목회 생태계에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 예배의 정상화는 과연 언제 가능할 것인가? 치료제와 백신 없이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면 기존 사역을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 방식과 시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사역이 요구되고 있는가? 이 책의 저자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최현식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는 지금 대전환의 기로에 놓였다고 밝히고 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충돌, 기존 사역과 새로운 사역의 충돌 속에서 목회자들은 혼란스럽다. 그들을 위해 저자는 코로나 이후에 더 강력해질 8가지 사역, 코로나 시기에 서서히 변화되는 6가지 사역,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3가지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지금 이 책에 관심 있는 독자가 사명자라면 코로나19 사태를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 번곡점이 한국 교회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줄 긍정 시그널이 되도록 하는 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책은 코로나19 상황을 한국 교회를 향한 대담한 도전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 파올로 조르다노 저/김희정 역, 2020

이탈리아의 지성 파올로 조르다노가 코로나19 한가운데에서 쓴 화제의 책. 파올로 조르다노는 입자물리학을 공부한 과학자이자 소설 〈소수의 고독〉으로 스트레가 상과 캄피엘로 상을 동시 수상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다. 파올로 조르다노는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이탈리아 한가운데 있지만, 소설가의 무한한 사유와 과학자의 엄정한 시선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불려온 현상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지금을 ‘전염의 시대’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이 전염의 시기가 폭로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 귀를 막고 싶지 않다”고. 그는 이 이례적인 사태 앞에서 허무와 고통만을 느낄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오늘에 이르렀는지 현상 이면을 섬세하게 읽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비단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벌어지는 일은 우연한 사고고, 천재지변도, 새로운 것도 전혀 아니며, 과거에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또 다시 벌어질 일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으면 좋을 책

〈뽀뽀 캐릭터 도감 : 전염병〉 이토 미쓰루 그림 / 정인영 역 / 오카다 하루에, 다산어린이

인류는 페스트나 콜레라 등의 다양한 전염병과 오랜 싸움을 이어 왔다. 전 세계 인구의 1/30이 줄어들 정도로 인간에게 치명적이었던 이 병들이 어떻게 지금은 예방 가능한 병이 된 것일까. 이러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은 법정 전염병을 기본으로,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전염병에 관해 다룬다.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뿐 아니라 증상, 치료법, 예방법까지 꼼꼼하게 소개하며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돕는다.



책 읽어주는 부모 ⑥ 배경지식

생각의 배경, 지식 쌓기

정신의학자인 예일대 브루스 웨슬러(Bruce Wexler) 교수는 “인간은 인생의 반은 세상에 맞는 규칙을 알아내기 위해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만든 규칙에 세상을 맞추기 위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자신의 도식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다시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도식(스키마, Scheme)이란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했던 장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가 인지발달의 이해를 위하여 설명한 개념으로, 정보를 체제화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개념 또는 틀을 말합니다. 피아제는 도식 외에도 동화, 조절, 적응이라는 개념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동화는 기존의 도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조절은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식을 생성하는 것이며, 적응은 동화와 조절의 과정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평형화를 실현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개”라는 동물의 특성(도식)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골에 가서 “소”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소”라는 동물에 대한 기본 정보(도식)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개”라는 도식으로 소를 이해하여 소를 보고 “큰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이 동화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소는 개와는 다른 동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책이나 다른 곳에서 소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라는 새로운 도식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이 조절입니다. 아이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물을 인식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본적인 도식이 많은 아이일수록 세상을 더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식은 배경지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책읽기입니다. 책을 읽으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배경지식들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 혼자서 책을 읽지 못하면 부모님께서 당연히 책을 읽어주어야겠지만,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혼자 읽기보다 읽어주는 것이 좋은 이유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개념화될 수 있게 부모님의 배경지식을 더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도식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문을 통해 부모님과 생각을 나누면서 읽는다면, 정보로서의 배경지식 뿐 아니라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의 인지 속에 배경지식이라는 잔고를 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씩 쌓아주다 보면 아이는 그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이 만나게 될 세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큰 자산이 될 배경지식. 당장 오늘부터 차곡차곡 쌓아주는 건 어떨까요?

교회 소식 | 홈페이지 개편

9월 22일, 홈페이지가 ‘확’ 바뀐다

주님의교회 홈페이지가 바뀐다. 작년 초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발족한 후 오랫동안 준비한 새 홈페이지가 주님의교회 교인들을 맞는다. 약 10년 전 개편된 옛 홈페이지가 한 곳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었다면, 새로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방문자들이 각각 필요한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020년 9월 22일 오전 9시

주님의교회 홈페이지가 바뀌는 시간이다. 2019년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출범한 이후 1년이 넘는 오랜 기간 공을 들였다. 옛 홈페이지는 2010년 전후에 개발되어 낡은 인터페이스에 모바일에서 호환이 되지 않는 기능적인 한계를 보여왔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홈페이지에 없던 내용을 포함, 많은 것이 새로워졌다.

시원한 디자인

새로 만든 홈페이지는 아주 시원하다. 화려한 장식을 쓰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 같은 요란한 기술을 넣지 않았다. 시원한 사진과 깔끔한 글자체로, 꾸밈을 배제하고 되도록 본질에 충실한 디자인이 되도록 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주님의교회 정신에 맞추어, 디자인에서도 본질을 생각하는 교회의 정신을 살리려고 했습니다.”이 어려운 일을 끝까지 마

무리한 홈페이지 TPT의 수장 김낙균 장로의 말이다. 디자인에서도 교회의 기본 정신을 살리려고 했다고 한다. 사용자 관점에서 설계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홍보와 자랑을 하지 않고, 화려한 꾸밈과 장식을 억제했다.

창립정신을 실천하는 공간

홈페이지를 보면 특별한 장식 없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눈에 띈다. 오른쪽에는 올해 교회 표어인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가 있다. 이곳은 절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창이 추가된다. 메인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면 예배 안내 등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배치되어 있다.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정신에 맞추어, ‘섬기는 사람들’에는 지금 시무 중인 당회원과 교회 직원을 위계 순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넣었다.

처음 오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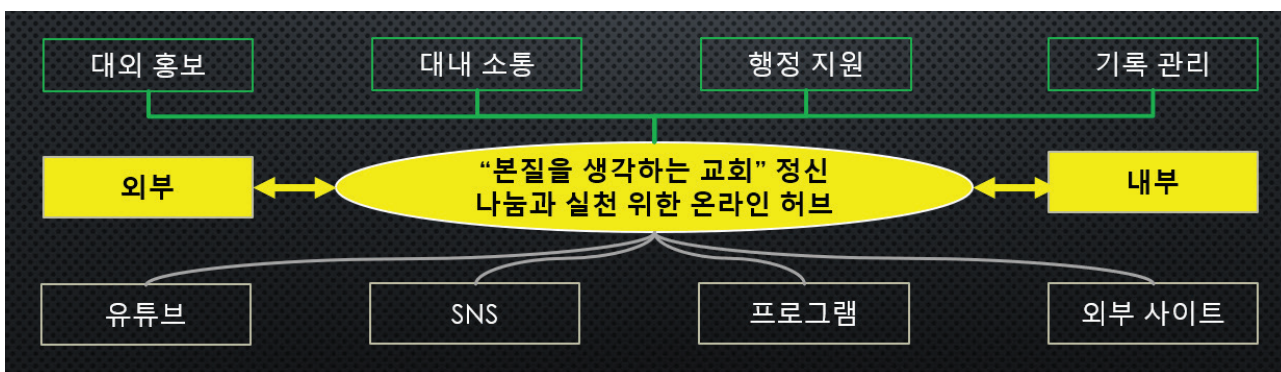
처음 주님의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은 ‘처음 오셨어요?’에서 만날 수 있다. 주님의교회 소개와 함께, 기존 홈페이지에 없던 주님의교회 네 가지 원칙도 여기에서 소개된다. 기존 교인들도 홈페이지에서 교회의 기본 정신을 계속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메뉴는 ‘예배와 설교’, ‘다음 세대’, ‘양육과 훈련’, ‘공동체’, ‘온라인 사무실’로 구성되며, 영어 사용자를 위한 ‘English’ 메뉴가 추가되었다. 이 모든 메뉴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펼쳐진다. 만일 한눈에 보고 싶으면 ‘한눈에 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가 한눈에 보인다!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다

새 홈페이지는 반응형 구조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태블릿, 모바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열어볼 수 있도록 했다. 화면 사이즈에 따라 모양

이 적절하게 바뀐다. <함글함글>, <주보>, <주일설교>, <주님의교회 25년사>, <주님의교회 정관> 등 다양한 기록과 정보를 찾아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온라인 사무실’에서는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헌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로그인 하면 교회의 재정 보고를 볼 수도 있고, 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는 대외적으로는 주님의교회 정신을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소통의 창구가 되며, 교인을 위한 행정지원과 기록관리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사용자 의견을 받아들여 계속 고치고 다듬겠습니다.”김낙균 장로의 말이다. 과연 홈페이지의 가장 하단에는 ‘의견을 듣습니다’기능이 있어, 메일을 보내면 담당자가 받아보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함글함글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예배, 예식용어 편 5

인간을 위한 모임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예식/기도회 구분해서 써야 한다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이다. 그래서 예배와 각종 기도회로 한 주일에 여러 차례 모인다. 주일 낮을 비롯하여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밤, 그리고 매일 새벽 등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세계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모임에 예배라는 명칭을 붙여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돌, 회갑, 추모 등의 모임에도 예배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와 예식과 기도회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

성들의 응답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결코 인간을 위한 모임이거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배와 예식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돌, 회갑, 추도, 입학, 졸업, 결혼, 입당, 임직, 교회 창립 등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예식으로 표현하고, 예배와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목적으로 모이는 수요 저녁 모임과 금요 철야 혹은 심야 모임 그리고 매일 새벽 모임 등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회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 교단 총회를 통과한 <표준예식서>의 정신을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가 타당하다고 본다. 주일예배, 주일저녁 찬양예배, 교회학교(주일학교)예배, 수요기도회, 철야기도회, 경건회(각종 회의 시작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글함글 정리

여름 특집 | 유소년숲 연합여름수련회

“예수님의 식탁”

지난 8월 22일(토), 23(일), 30(일) 총 3일에 걸쳐 <2020 유소년숲 연합 여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유소년숲 수련회는 예수님의 “공감과 환대”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유소년숲 수련회는 복음서의 예수님 식탁 교제 장면들(막 6:30~44, 2:13~17)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공감과 환대”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수련회의 모든 말씀과 프로그램은 사회의 소외된 이들, 나와 다른 타자를 향한 깊은 공감과 따뜻한 환대가 예수님 삶의 기본 자세이자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임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년째 교회 전체 표어인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라는 주님의교회 사역 방향에 따라, 가정의 양육자가 일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 활동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순서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수련회 첫째 날(22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뮤지컬을 시청하고 그 내용을 나누며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을 담은 “뮤지컬로 드리는 우리집 가정예배”활동지를 제공하였다. 둘째 날(23일)과 셋째 날(30일) 사이의 수련회 주간에는 아이들의 주중 챌린지 활동을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날 활동의 핵심을 담은 문자를 양육자에게 매일 발송하였다. 또한,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수련회 찬양(율동)의 일부 구간을 온 가족이 함께 따라 하는 가족미션을

제시하였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율동 해설 영상을 제공하였고,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율동한 영상을 찍어 응모하면 소정의 선물도 제공했다.

이번 유소년숲 수련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기획하긴 했으나, 본래 마지막 날인 8월 30일 주일 오후 3:30에는 교회 앞마당에서 수련회 마무리 행사로 워크-스루(Walk-Thru: 정해진 경로를 걸어서 통과하는 대면 프로그램)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인해 오프라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수련회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수련회에는 162가정의 아이들 209명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참여하였다. 이는 올해 1월 유소년숲 평균 현장 출석인원인 407명 대비 약 51%에 해당하는 참석률이다. 비록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여름수련회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지만, 가정과 교회학교의 양육자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에 즐겁고 알찬 수련회가 될 수 있었다.

주님의교회 유소년숲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를 위해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몇 가지 특별한 부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참가자 관리

온라인 수련회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영상 제작과 송출이 아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수련회에 필요한 개인별 정보(참가자의 나이와 소속, 실시간 연락 가능한 양육자 연락처, 정확한 상세주소 등)를 수집하여 목적에 맞게 분류하고, 단체티셔츠 제작 등에 필요한 개인별 세부 정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지를 통해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번 연합 수련회에서는 참가자 전원을 학년에 따라 유년부팀, 초등부팀, 소년부팀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수련회 진행 동안 단체 문자(양육자 연락처)를

통해 지속해서 주요 공지와 안내 사항을 빠짐없이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바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련회 박스 택배 발송

수련회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수련회 박스로 만들어 수련회 시작 전에 택배로 발송했다. 참가 신청을 한 모든 아이는 자기 이름으로 개인별 택배를 받게 하였다. 또한, 모이지 못하고 수련회를 하더라도 수련회 기분을 최대한 느끼게 하려고 정해진 예산 내에서 신경 써서 물품을 구성하였다. 단체 티셔츠는 진노랑과 검정 색상으로 디자인을 커핑링 하여 두 가지 디자인 중

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개인별 치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간식도 빠질 수 없어 수련회 첫날 순서인 뮤지컬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도 정성껏 챙겼다. 두툽한 문서 파일 안에는 뽀뽀한 종이에 컬러 인쇄한 수련회 포스터와 뮤지컬 브로셔, 수련회 일정표, 뮤지컬로 드리는 우리집 가정예배지(3부), 부서별 챌린지북 “예수님과 함께”(주중활동 소책자), 부서별 성경학습1,2 교재가 빠곡하게 들어갔다. 이 모든 자료는 이번 수련회를 위해 유소년들이 자체 제작하였다. 또한, 수련회 기간 중의 만들기 활동(공통 1개, 부서별 2개)에 사용할 만들기

재료들도 함께 넣었다.

혹시라도 수련회 전에 물품을 받지 못해 정시에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회 신청 단계에서 택배 발송을 위한 정확한 상세 주소를 수집하였으며, 물품이 빠지거나 잘못 가서 아이들이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몇 차례에 걸쳐 철저하게 포장 물품을 점검했다. 또한, 각 박스는 개인별로 내용물이 달라서, 일일이 명단을 확인하며 박스와 송장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챙겨 발송했다. 이러한 물품 포장과 택배 배송 작업을 위해 각 부서의 많은 손길이 두 차례 모여 진정한 육체노동의 땀방울을 흘렸다.



여름 특집 | 유소년부 연합여름수련회

“예수님의 식탁”

온라인 준비기도회 : 8/11(화)~8/21(금)
(주일 제외) 밤 9시

수련회 준비를 위한 기도회 역시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수련회 시작 열흘 전부터 매일 밤 9시에 사전 녹화한 기도회 영상을 유소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하였고, 매일 기도회 시작 전 수련회 신청자(양육자)와 유소년부 교사 전체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참여를 독려했다. 언뜻 보면 인도자의 짧은 도입 인사와 초대 영상, 5개의 수련회 기도 제목 화면과 배경음악, 그리고 마무리 주기도문 낭독으로 이루어진 5분 남짓한 기도회 영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영상에는 카메라 앞 낯선 풍경에 진땀을 빼며 거듭 녹화를 한 인도자들의 수고와 간절한 기도가 깊이 배어 있다.

온라인 뮤지컬 “이야기숲에서”와 뮤지컬로 드리는 우리집 가정예배

유소년부 수련회 중심 교육 주제인 “공감과 환대”를 잘 표현하는 뮤지컬을 찾아 극단과 협의하여 유소년부 수련회용 영상으로 제작했다. 이 영상은 수련회 첫째 날인 22일 토요일 순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온 가족이 편하게 함께 모여서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도록 수련회 시작 시각도 오후 8시로 잡았다. 본래 현장 공연 기준으로 계약한 뮤지컬 사용권으로 인해 실제 공연처럼 오후 8~10시까지 2시간 동안만 유소년부 유튜브 채널에 영상물을 게시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와 캐나다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유소년부 아이들과 가정들을 고려하여 극단과 협의 후 12시간 동안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우리 교회 중예배실에서 진행된 공연

녹화 날에는 영상뉴스 팀장님(박진현 집사)과 영상간사님, 그리고 음향간사님이 공연 실황을 카메라 5대로 녹화(영상, 음향)를 했다. 그리고 이 많은 양의 원본 영상과 음향 녹화물을 영상간사님이 교차 편집하여 수련회 첫째 날을 여는 한 편의 멋진 뮤지컬 영상이 탄생했다. 또한, 비록 온라인 공연이지만 현장 공연에 준하는 기대감을 고취하기 위해, 디자인간사님께 의뢰하여 공연 정보가 담긴 멋진 뮤지컬 브로셔를 디자인하고, 이를 최고급 용지로 인쇄하여 수련회 용품에 동봉하여 보냈다. 뮤지컬 시청 직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뮤지컬로 드리는 우리집 가정예배”를 하도록 계획하였는데, 이를 위해 가정예배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담긴 가정예배지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연령대별 팀 배치와 교육자료 제작

유소년부 연합 여름수련회는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유년부팀(1,2학년), 초등부팀(3,4학년), 소년부팀(5,6학년)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수련회의 주요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었던 두 차례에 걸친 성경학습에서 연령대별, 수준별 교육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팀별 맞춤 교육과 진행을 위해 유소년부에서는 전 교역자를 대상으로 본문 및 주제 학습을 진행했고, 각 팀 담당 교역자들은 수련회 주제 설교와 맥을 같이 하는 2회분의 부서별 성경학습 교재를 직접 제작하였다. 또한, 수련회 기간 각 가정에서 수행하는 주중 활동을 위한 챌린지북 “예수님과 함께”(주중활동 소책자)도 일자별 동일 주제를 연령 수준에 따라 조정하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팀별로 제작하고 제공하였다.



다양한 만들기 활동과 피드백 퀴즈

온라인 수련회는 모여서 할 수 없으므로, 레크레이션이나 교육 활동에 제약이 많다. 따라서 자칫하면 수동적인 영상 시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수련회에서는 3번 만들기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총 5회(뮤지컬 인증샷, 성경학습 퀴즈 2회, 가족미션, 수련회 마무리 인증샷)의 피드백 활동을 요청했다.

첫 만들기는 부서 공통 만들기로, 수련회 첫날 시작(오후 8시) 전인 오후 2시에 게시하여, 가정에서 참여하는 이번 수련회의 의미를 살펴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때 만든 “우리집 램프”는 저녁에 진행되는 수련회 첫째 날 뮤지컬과 가정예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과 유인물, 그리고 단체 문자를 통해 안내했다. 나머지 두 번의 만들기는 두 차례의 부서별 성경학습 중에 하도록 하였는데, 부서별로 차등을 둔 만들기 활동을 통해 그날 성경학습의 핵심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다.

또한, 수련회 기간 중 수시로 팀별 담당교역자 연락처로 수련회 물품 인증샷과 성경학습 피드백 퀴즈 정답 등을 응모하도록 하여 각 피드백에 실시간으로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매번 소정의 선물(간식 상품권)도 보냈다. 수련회 기간의 모든 피드백 결과는 사전에 준비한 엑셀 명단에 회차별로 누적하여 꼼꼼하게 기록하였다. 수련회 진행 중 주요 피드백(뮤지컬 인증샷 1회, 성경학습 퀴즈 2회) 응답률 평균은 유년부팀 70%, 초등부팀 64%, 소년부팀 67%로 나타났다.

신나는 찬양과 가족미션

수련회에는 찬양이 빠질 수 없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찬양과 율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즐거운 분위기의 찬양곡을 선별하였고, 수련회 주제(공감과 환대)를 포함한 주제곡도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영상예배 찬양과 차별화를 위해 이번 수련회 찬양에는 각 부서의 찬양 교사와 청년 교사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영상을 녹화하였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가족미션을 부여하여, 안내 영상에서 지정한 수련회 찬양곡 일부 구간을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서라도 따라 하며 짧은 영상을 촬영하여 응모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부터 모든 연령의 양육자까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율동 해설 영상도 게시했다. 성실하게 참가한 모든 응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냈고, 특별히 가족이 함께 참여한 경우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선물을 증정했다.



여름 특집 | 청소년숲 여름온라인수련회

“창문 넘어 함께 사는 ‘10대’ 그리스도인”

청소년숲 2020년 여름수련회는 8월 23일(주일) ~ 9월 6일(주일)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0여 명의 청소년숲 가족들이 주일에는 온라인예배와 특별순서로, 주중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 도전과제를 수행한 후, 결과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14박 15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숲 2020년 여름수련회는 함께 모일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6가지 영역: 나, 가정, 친구, 신앙, 미디어,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도전 과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8월 23일(주일) ~ 9월 6일(주일)까지 190여 명의 청소년숲 가족들이 주일에는 온라인예배와 특별순서로, 주중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 챌린지에 참여하고 도전과제를 수행한 후, 인증샷과 동영상, 소감문 등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14박 15일 동안 진행되었다. 미션에 참가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감상문과 영상에 담긴 소감을 들으며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나/가정/친구/신앙/환경/미디어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배우와 성장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숲 2020년 여름수련회를 통해 개인마다 자신의 고유한 경험들이 생겨났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 친구도 있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 친구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친구들, 멀어졌던 친구 사이가 풍성한 나눔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친구들, 환경을 생각한 작은 행동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친구들, 또 누군가에게 용서와 감사를 표현하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던 청소년숲 가족들! 그들은 그렇게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다. 비록 교회라는 공간에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우리는 창문 밖, 자신이 익숙했던 삶의 경계를 넘어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Live a Live!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당당한 10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기도한다.

여름 특집 | 청소년숲 여름온라인수련회

“창문 넘어 함께 사는 ‘10대’ 그리스도인”

학생 소감

당연한 일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나 챌린지

나 챌린지에 세 미션, 포스트잇에 나에게 문장쓰기, 하나님의 편지 읽기,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단어 쓰기가 있었다. 나 챌린지는 챌린지 이름 그대로 나에게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나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나를 표현하는 단어 쓰기에서, 나의 성격이 보이는 단어들이 있어서 신기했다. 또, 하나님의 편지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와 닿았다.

가정 챌린지

가정 챌린지에 두 미션, 가족과 식사하기와 집에서 청소하기의 미션 두가지가 있었다. 가족과 식사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것이지만, 미션을 하면서 너무 당연한 것들도 감사한 것이라는 걸 느꼈다. 나를 항상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가족들과 매일 식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란 걸 느꼈다. 또, 청소하기 미션에서는 설거지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다. 어렵지 않은 설거지 하나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또 자주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가 재밌는 것 같다.

친구 챌린지

친구 챌린지에서 3명의 친구들에게 안부 물어보고, 질문을 몇 가지 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미션이었다. 오랜만에 친구와 연락도 하고, 서먹서먹한 친구와 다시 친해질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친구들도 잘 못 만나는데, 빨리 같이 놀고 싶고, 친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신앙 챌린지

신앙 챌린지에선 정말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큐티 나눔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배웠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게 뭐지?” “예수님은 그럼 언제 오실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마음 속에 계셨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이런 내 생각을 Vip Ministry 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다.

환경 챌린지

환경 챌린지에선 고무 컵 쓰기와 분리수거 하기가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모로 쓰레기가 더 많이 생기고 있어서, 분리수거를 잘해야 하는데, 미션을 통해 다시 생각해볼게 되었다. 항상 환경을 생각해야 하고, 분리수거 잘하고, 아껴 쓰자 등은 머릿속에 있지만, 실천을 잘 안할 때도 있는 것 같아 반성도 했다. 또, 고무 컵이나 유리컵을 쓰는 것이 훨씬 환경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고 일회용 컵을 쓰는 것만큼 다를 것 없다는 점도 느꼈다.

미디어 챌린지

미디어 챌린지에선 감사 릴레이와 고마운 사람에게 영상편지 쓰기가 있었다. 감사 릴레이를 하면서 너무 당연한 일상들, 우리가 매일 하고 일어나는 것들 모두 너무 감사하다는 걸 배웠다. 특히 요즘에는 당연히 학교와 교회를 가던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도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다. 또, 영상 편지로 고마운 마음을 친구에게 전했는데, 미션을 딱 받았을 땐 뭔가 영상 찍기도 민망할 것 같고, 딱히 고마운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너무 고마운 사람도 많고 고마운 점들도 많았다. 미션을 수행하고 나니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은 모두 사라졌고, 뿌듯하다는 걸 느꼈다.

권재이 / 중등부 1학년



* 학생과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사진들

학생 소감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던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1학년 우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깐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마침 딱 주님의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재밌게 수련회도 해주시고 예배도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2주 동안 일요일을 정말 활기차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에서 여러 챌린지들을 했는데 나 챌린지, 미디어 챌린지, 환경 챌린지, 가정 챌린지, 신앙 챌린지, 친구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처음으로 나 챌린지를 했는데 하면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고 거울에 붙여서 보았을 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활동이 된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정 챌린지를 하였는데 여기서는 가족과 함께 2km 걷기, 식사 차리기, 청소하기 이렇게 3가지의 미션이 있었는데 나는 가족과 함께 2km 걷기, 청소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로 인해 밖에 나가서 엄마와 산책도 하고 집에서도 하지 않던 청소를 해서 엄마가 굉장히 비웃었지만 열심히 하었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이제부터 청소를 많이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환경 챌린지에서는 분리수거와 관련 있는 영상 보기, 분리수거하기, 주님의 교회에서 준 컵 5회 이상 사용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미션을 보고 '오, 이번 미션 쉽겠다,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컵 5회 이상 쓰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고 많이 지겨웠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을 한 것을 보고 '작은 것 하나에도 환경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신앙 챌린지가 있었는데 신앙에서는 누가복음 10장 25~37절, 17장

20~27절을 읽고 나눔 올리기, 다른 사람이 올린 나눔에 댓글 달기, 친구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읽고 나눔을 올리면서 성경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한 사건에 대해 상상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글도 읽어보면서 서로 나눔을 교감하면서 댓글을 써서 정말 좋은 미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친구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기도하는 활동이 정말 마음속에 와 닿아서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구 챌린지에서는 친구 세 명에게 안부 묻기, 고민 상담소에 친구의 고민 올리기, 친구 챌린지 미션지를 활용하여 친구 알아가기가 있었는데 정말로 교회에서 말한 것 이후에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애들에게 안부도 묻고 고민도 듣고 친구도 알아가서 빨리 교회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 것 같고 친구에 고민도 듣고 나니 공감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한 것을 친구에게 말해서 정말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미디어 챌린지에서는 감사일기 쓰고 지목한 사람이 감사일기 쓰기, 부모님에게 감사했던 것 영상으로 찍기가 있었는데 카톡방에서도 어렵다고 소문이 나서 긴장하며 들어왔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감사일기를 쓸 때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냥 쓰다 보니 다 써져 있었습니다. 또 저에게는 믿음직한 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미션을 쉽게 깨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고마웠던 것 영상 찍기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감사했던 것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쉽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챌린지가 끝이 나서 정말 아쉬웠지만 저에게는 아직 중2, 중3, 고1.... 쪽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민수 / 중등부 1학년



* 학생과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사진들

여름 특집 | 청소년숲 여름온라인수련회

“창문 넘어 함께 사는 ‘10대’ 그리스도인”

학생 소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나

나 챌린지

나의 성격, 남이 보는 나의 모습 등 나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특히 모든 면에서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항상 나의 잘못을 보듬어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처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인해 심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자책하곤 했는데 이 편지를 읽고 위로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 편지를 잘 간직해 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어봐야겠다.

친구 챌린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학원도, 교회도 가지 못해서 친구들을 못 본 지 한참이었다. 이 와중에 미션을 핑계로라도 연락을 오랫동안 못했던 친구들과도 연락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친구 한 명과 연락을 하며 그 친구의 이름 풀이부터 시작해서 친구의 고민도 들어볼 수 있어서 의미 있던 시간인 것 같다. 종종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또, 이번에 미션을 통해서 연락한 친구들 말고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봐야겠다.

환경 챌린지

처음 챌린지 상자를 받고 가장 신기했던 것이 환경 챌린지 미션 컵이었다. 이 컵을 처음 봐서인지 매우 신기했다. 또, 세상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했다. ㅋㅋ 평소에도 우리 집에서는 분리수거를 자주하는데 뭔가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분리수거를 하니 사명감이 생겨서 페트병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종이 상자에 혹시 섞이진 않았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다 신경써볼 수 있었다. 평상시에도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분리수거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신앙 챌린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보니 성경책을 자주 읽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미션 말씀 구절뿐만 아니라 받은 책의 여러 부분을 읽어 봤었는데 평소에 내

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잡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 친구에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소개해 줄 수 있어서 좋았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대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찬양 중에 가사도, 멜로디도 너무 좋아서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받을 수 있던 찬양을 친구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 평상시에도 여러 찬양을 들어보고 꼭 친구만이 아니더라도 가족들과도 서로 좋아하는 찬양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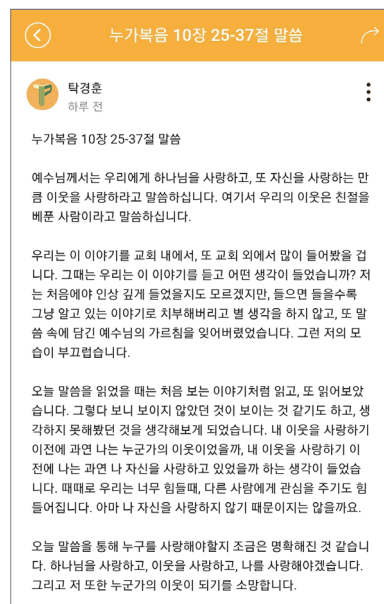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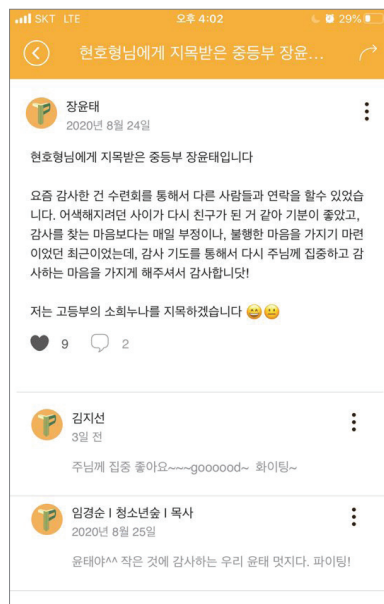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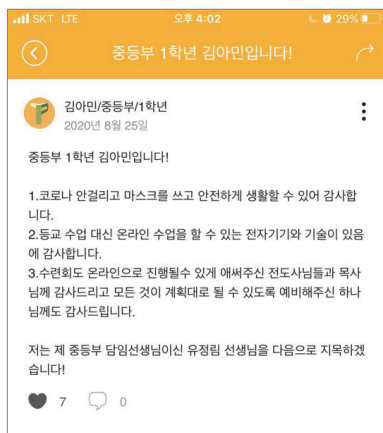
가정 챌린지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학교에 일찍 등교해서 하교 시간은 늦춰지고, 또 학교에 다녀와서 집에 들르지 못하고 바로 독서실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정말 아쉬웠다. 중학교 때는 아빠와 함께 운동하고, 산책하는 시간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적어져서 속상했다. 그래서인지 가정 챌린지가 내게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내가 동생에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줬는데, 직접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서 하나하나 보완해가면서 만들었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 준 밥을 동생이 맛있게 먹어주어서 너무너무 뿌듯했고 방학과 온라인 수업 기간에 동생을 위해 종종 만들어줘야겠다.

미디어 챌린지

처음 미디어 챌린지 미션을 보고 사실 조금 막막했다. 평소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등을 잘 전달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전하려니 너무 부끄러웠다. 특히 언니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것이 힘들었다. 언니와는 자주 싸우지만 또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언니는 지금 고3이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주는 못 보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더 배려해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생각만큼 행동이 잘 되지는 않는다. 그러고 나서 종종 후회하곤 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미션이 더욱 의미 있었다. 언니에게 전해지 못했던, 내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영상으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앞으로는 언니에게 직접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언니를 배려할 수 있는 동생이 되어야겠다.

김수진 / 고등부 1학년



* 학생과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귀한 글들

교사 소감

받은 은혜가 너무 큼니다

학생들의 수련회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로 시작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영역별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기획과 준비, 진행을 맡아 수고하셨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를 넘어

아직도 세면실 출입문에 썼던 말씀 3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넌 잘 할 수 있어~!' '목표를 달성할 거야!', '하나님은 네 편이야!'라고 하는 문구들이 제가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침 저녁 볼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넘어

함께 걷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미션~~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지글지글 요리해서, 큰 접시에 담아서 나누어 먹을 때,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엄마가 해준 스파게티가 최고로 맛있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기뻐했던 때가 생각나며, 가끔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을 넘어

새벽마다 큐티를 하며, 새샘 선생님들과 몇 분 지인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영과 학생에게도 보내며, 함께 돌아봤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학년임에도, 학원의 숙제가 많아서,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던 이가 아쉽고,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친구를 넘어

멀리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질문지를 통해서, 1시간 넘게 교제하며, 성령님이 예비하신 시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린 때로 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가도, 상황과 환경 속에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선한 교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잡기를 기도합니다.

환경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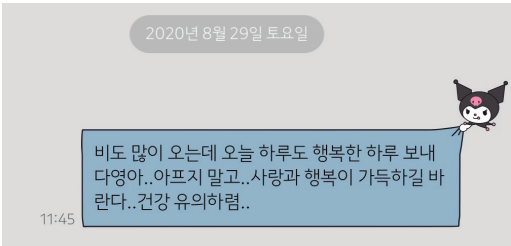
재활용을 하는 영상을 딸에게 찍어달라고 하며, 그리고 컵을 5회 이상 활용하는 사진을 찍으며, 이런 세심한 영역까지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를 넘어

와우~ 제가 친정어머니에게 찍어 보내드린 영상을 보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쁜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까운 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최성이 / 고등부 교사



* 학생과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사진들

여름 특집 | 청년숲 여름집회

“더 헤리티지(The Heritage)”

청년숲 2020년 여름집회가 “더 헤리티지(The Heritage)”라는 주제로 8월 9일(주일), 16일(주일), 23일(주일) 3주간 동안 정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김학철 교수(연세대)와 정구민 목사(청년부담당)의 강의와 영상 콘텐츠,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청년여름집회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펼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9일(주일), 16일(주일), 23일(주일) 3주간 2020년 청년여름집회 “더 헤리티지(The Heritage)”가 있었습니다. “더 헤리티지”는 김학철 교수(연세대)와 정구민 목사(청년부담당)의 강의로 대예배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수칙

에 따라 1m 간격을 유지한 채 입장하고, 발열체크와 손소독제를 배치하였습니다. 청년숲뿐만 아니라 신청자 모두에게 열린 이번 청년여름집회는 2번의 오프라인 예배와 1번의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청년집회를 준비하는 교역자팀, 부장단, 임원단에서는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집회만큼 은혜와 감동, 예배의 깊이를 전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1강 프로테스탄트의 세 가지 유산, 2강 신앙의 세 유산과 기독교 청년의 삶과 사고, 3강 Sola Gratia라는 강의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고, 21세기를 신앙인으로 살아갈 청년들의 삶과 사고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강의방식이 아닌 <토크콘서트>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 및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20년 청년여름집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SNS와 유튜브 플랫폼, 화상회의 앱(Zoom) 등 새로운 도구들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역 전략들을 펼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년숲 예배는 유튜브 채널 <주님의교회 청년숲>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사역 보고 | 협력교회선교부

마음으로 함께하는 협력교회선교

국내선교의 방향 전환

지난 2017년 국내선교분과위원회는 그간 국내선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 신학적/목회적/행정적 전문가들로 꾸려진 테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주체가 되어 국내선교분과의 각 사역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발전적 국내선교를 위한 세 번의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 교회의 창립정신이 예산의 절반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고, 정신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의 방향이 맞춰져 있으나, 실제 사역이 이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였습니다. 또 우

리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한계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국내선교방향의 중요한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동안 필요에 의해 펼쳐진 사역범위가 너무 넓고 산만하여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었다는 점과 농어촌 선교 중심에서 실제 많은 수요가 존재하는 도시 교회와의 고른 안배를 시도하였다는 점,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여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품고 있는 목사들이 현재 몸담고 있는 협력교회를 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자발적인 선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것과 물질적 지원만이 아닌 우리와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선교로의 전환이 미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국내선교분과는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협력교회선교부 발족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협력교회선교부가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역을 함께 나누고 교우 여러분들께 기도를 요청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거쳐 가신 교역자가 사역하는 교회에 대한 관심은 모든 교우들이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별적인 관계를 맺고, 사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이 협력교회를 향한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선교적 협력사역은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듯이 우리를 하나의 공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응답과 자세입니다.

일찍이 레슬리 뉴비긴이란 영국의 선교신학자는 선교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선교이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이다. 또한 복음의 본질은 교회를 좀 더 참된 교회로 만들고 세상에 대해 좀 더 참된 선교를 하게 한다는 핵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광야의교회 하늘꿈 작은도서관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하늘꿈 작은도서관(리모델링 후)



광야의교회 예배실(리모델링 후)



삼성교회와 하나되어 준비한 사랑나눔잔치



삼성교회와 하나되어 준비한 사랑나눔잔치



맑은세상세린교회 현장실사



삼성교회에 설치된 사랑방



삼성교회에 설치된 사랑방



맑은세상세린교회에서 진행한 무지개한마당



맑은세상세린교회에서 진행한 무지개한마당



춘천 맑은세상 세린교회 친교실(리모델링 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선교

뉴비긴이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교회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힘으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품고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오늘날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뒷짐을 진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교회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되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과 나누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주님의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제교회와 맑은세상세린교회

2018년 우리는 우선적으로 서울 문정동 올림픽웨이밀리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예제교회(우동윤 목사 시무)와 춘천 후평동에 위치한 맑은세상세린교회(정희성 목사 시무)를 첫 번째 사역지로 선정하여 사역지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 이들 교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제교회와 맑은세상세린교회는 각각 서울과 춘천이라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한 곳은 상가의 건물 속에 웅크려진 모습으로, 다른 한 곳은 아파트 단지 와 주택가 사이에 덩그러니 홀로 서 있는 모습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이웃으로 벗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를 협력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제교회는 우동윤 목사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너무 가려

져 있고 닫혀져 있던 공간을 탁 트인 열린 공간으로, 주일을 제외한 날에는 마을 소모임과 전시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맑은세상세린교회 역시 정희성 목사의 요청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과 상담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친교실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였고, 참석자 자녀들과 지역 사회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모임방과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마당에서 봄철 어린이날에는 교우 여러분이 함께 하여 무지개한마당을 진행하였고, 가을에는 주오오케스트라의 도움을 받아 음악회를 함께 준비하여 여는 등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알렸습니다.

삼성교회와 광야의교회

경기 파주에 위치한 삼성교회(윤덕영 목사 시무)역시 첫 번째 사역지로 선정했습니다. 파주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 위치한 삼성교회는 교회에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는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는데, 의료/이미용/고전무용/호스피스부(발마사지)가 함께 하여 즐거운 어르신 마을잔치를 열어드렸고, 후에 교회의 필요들에 맞춰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파주 삼성교회에는 2019년에도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었습니다.

임창진 목사의 부임과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광야의교회 역시 지역사회와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과 모임실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였고, 교우분들의 파송을 준비하는 모임을 4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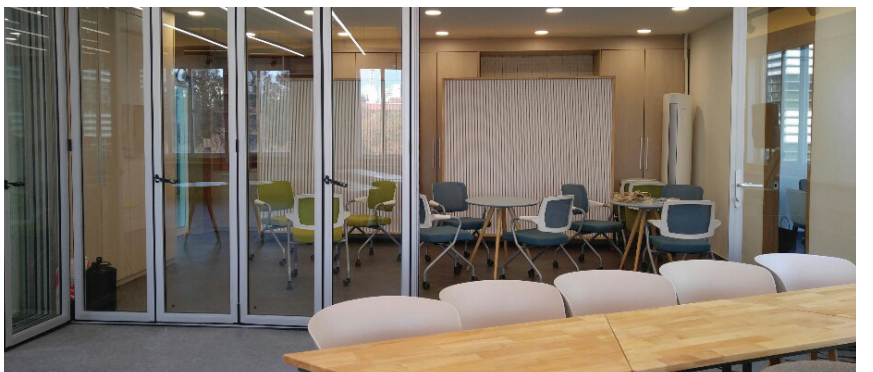
예제교회 예배실(리모델링 후)



예제교회 예배실(리모델링 전)



김윤섭 안수집사님 목공 재능기부



예제교회 모임실(리모델링 후)



예제교회 입구(리모델링 전)



예제교회 입구(리모델링 후)



춘천 맑은세상 세린교회 친교실(리모델링 후)

늘푸른교회와 송우제일교회

2019년에는 충북 음성 늘푸른교회(유기영 목사 시무)와 경기 포천 송우제일교회(이창현 목사 시무)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늘푸른교회는 유기영 목사가 과수원을 일구며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한 음성 지역에 이미 존재하던 교회였고 해당 교회 담임목사가 은퇴를 하며 그 자리를 맡아 시작하게 된 협력교회입니다. 교회의 공간이 오래되고 낡아여 기저기 고쳐야 할 것이 많아 지원하게 되었는데 새롭게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교회에 젊은 가정들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교회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게 되었고 완공을 하며 미시오데이 선교찬양대와 함께 연주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단지역에 위치한 송우제일교회는 주변에 문화시설이 없어 교회 주변 이웃들이 부담 없이 머물며 쉴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춘 선교적 용도의 북카페를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도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하늘꿈교회

2019년에는 강원 동해 하늘꿈교회(신화식 목사 시무)에 필요들을 채우는 사역도 진행하였습니다. 하늘꿈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내 이미용 기술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에 맞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미용 기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구입해드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어려움

에 처한 교회를 위해 공휴헌금을 보내드렸고, 이번 여름 길고 길었던 장마로 피해를 입은 복구하는 일에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연대하고 함께하는 교회

독일의 선교신학자 순더마이어는 본회퍼의 Church for Others를 넘어 Church with Others를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는 교회이기보다 그들과 마음으로 연대하고 함께 하는 교회이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였던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기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사역의 여러 성과와 열매들을 논하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

금 우리의 이웃을, 특별히 우리와 함께 정을 나누는 협력교회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공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한 분들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과 사랑이 미치지 못한 땅 한복판에서 자기 삶 전부를 걸어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협력교회 교역자분들과, 국내 방방곡곡을 함께 누비며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때까지 이 길을 성실하게 가기로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박주영 목사



미시오데이 선교찬양대 찬양연주회



늘푸른교회 예배실(리모델링 후)



북카페로 새롭게 단장한 친교실(리모델링 후)



송우제일교회 친교실(리모델링 후)



송우교회 친교실(리모델링 전)



송우교회 친교실 공사중

목회칼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다시 교회를 바라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New normal'(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코로나 19'는 우리를 이전과 다른 일상으로 이끌었고, 또 'New normal'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New normal'이 오늘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회복하여 다시 기존의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시도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코로나 19'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시대적 변화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면, 교회는 무엇보다 선교적 본질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선교적) 사명을 부여한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를 말합니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며,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앨런 록스버그(Alan J. Roxburgh)와 스콧 보렌(M.Scott Boren)에 따르면, “선교적”으로 존재함은 보다 나은 방식의 ‘교회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요 ‘교회’ 그 자체에 관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요하네스 니센도 “선교는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해방하기 위해 세상속으로 보내진 교회다.”라고 함으로써 선교를 교회 자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교회라면 교회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 결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며 세상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안이 아니라 세상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선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대 이후 정치와 종교, 주거 공간과 일터의 분리현상은 신앙과 삶의 분리를 야기했다. 그 결과, 신앙은 교회안에서만 추구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직(선교적 직무)이 교회 전체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재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는 곧 메시지다'

갑자기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혼란가운데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을 견디며 낯선 경험을 하고 있는 이때가 새로운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역사속에서도 시대와 문화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절대적으로 여기던 사고의 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와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적 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함께 바라봄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위협속에서 교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위기를 넘어설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를 지나 뉴노멀 시대에 교회는 새로운 포맷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관심을 교회안에서 삶의 현장으로 돌려주었고, 신앙의 책임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공적 영역에 이르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삶의 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공적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곧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메시지 그 자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어서,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에도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전해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비율 목사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눅 21:33)

‘교회는 곧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일치 추구는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교회 -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동안 기독교의 오랜 역사에서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곧

슈를 풀어가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후부터 지금까지 조화와 균형 혹은 건강한 교회라는 가치와 구조를 중시해 왔습니다. 교회내의 모든 조직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 가는데 관심을 두고 혹여나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며 나름의 긴장을 유지하며 현재의 안정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변화와 도약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기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소망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져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고문헌 : 목회와우리, 월간목회

*-『목회와 우리』, 목회윤리연구소, 2020

** Alan J. Roxburgh and M. Scott Boren,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9), 72.

겨자씨 소식 | 8교구

온라인으로 모인 낮선 반가움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멈추었던 8교구 겨자씨모임이 “Holy Sunday, Happy 1PM”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모이던 그 장소가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낯선 곳에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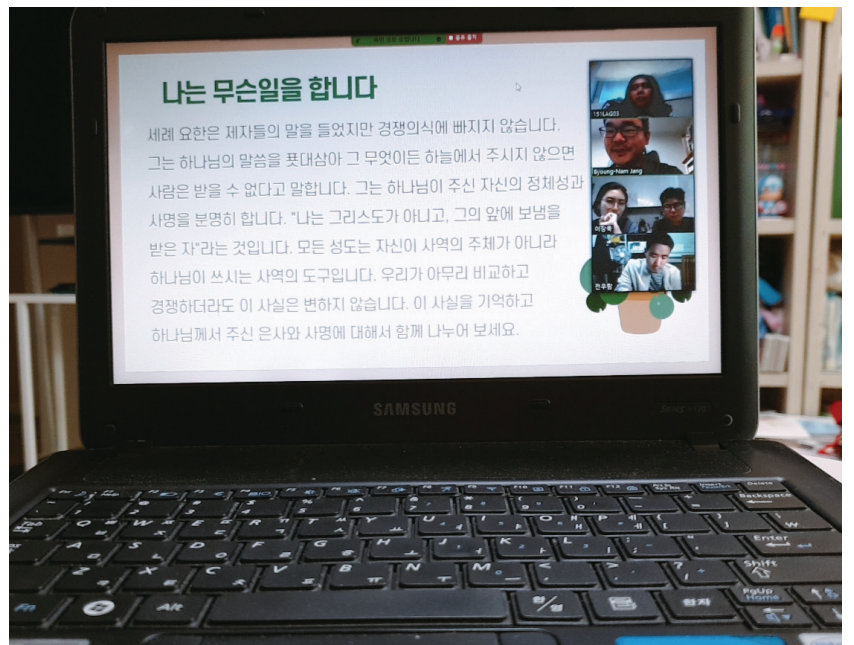
온라인 만남이어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예배시간이 달라서 겨자씨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가정도 다시 함께 모임을 할 수 있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있는 가정도 함께 참

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생각했던 시간을 훌쩍 넘어 모임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만나고 싶었었는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는 것을 얼마나 바래왔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게 준비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8교구를 섬겨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각 겨자씨를 섬겨주시는 인도자와 멘토리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도 서로를 생각하며 반가운 얼굴로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진원 집사



Holy Sunday, Happy 1PM

거룩한 주일, 행복한 오후 1시
온라인 겨자씨모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교회 젊은이교구 겨자씨모임이 온라인으로 새롭게 진행됩니다.

모임 기간	모임 시간	모임 방법
9.13(주일) - 11.29(주일)	주일 오후 1시 - 2시 (1시간)	'ZOOM' 어플을 이용한 온라인 겨자씨모임



알립니다

코로나19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제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지혜롭게 이겨냅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겨자씨 모임을 합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오히려 더 가까운 날들입니다. 온라인에서 삶과 말씀을 나누는 겨자씨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 알립니다

1. 전교인 온라인 대심방

기간 : 9월~11월(3개월 간)

신청 :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방법 : 대심방 기간 중 자유롭게 신청하면 그 다음 주 개별연락 후 전화심방

2. 2020년 하반기 온라인겨자씨모임

일시 : 9/9(수)부터 시작

방식 : 1) 전체겨자씨대상 영상교육(유튜브)

2) 겨자씨별 후속모임(Follow-up meeting)

▶ 카카오톡 / 그룹톡 / 라이브톡 / 줌 활용

3. 입교 및 세례교육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교육 : 9/13~10/11(5주) 오후1:30~3:00

접수 : 강경희 집사(010.5551.7059)

문의 : 이창수 안수집사(010.5472.7059)